

TV 11월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Table with 4 columns: KBS1, KBS2, MBC, KBC/SBS.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.

Table with 2 columns: EBS 플러스1, EBS 플러스2. Lists EBS Plus 1 and Plus 2 programs.

'왕중근의...' DJ 자서전 집필 김택근 초대

광주MBC 13·20일 연속방송

광주MBC '왕중근의 아름다운 초대'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'김대중 자서전'의 집필자인 경향신문 김택근 논설위원 편을 방송한다.

오는 13일 밤 9시55분 '행동하는 양심으로'·20일 밤 9시55분 '나는 역사와 국민을 믿는다' 등 2회에 걸쳐 방송되는 이 대담은 김 전 대통령의 삶의 마지막을 지킨 그를 통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, 민생을 위해 온몸을 바친 정치가의 전모를 엿보는 기회가 된다.

김 논설위원은 지난 2004년 김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자서전을 집필하기 시작했고, 100시간에 가까운 공수와 일기를 통해 삶을 기록하고 정리했다. 이 프로그램에서 김 위원은 "그분은 끊임없이 길이 있어 있었다. 늘 안주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운 길을 떠났던 사람이다"며 고난의 수렁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긍정의 철학이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만들었다고 말한다. 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가족사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, 퇴임 후까지 김 전 대통령의 전 생애를 기록하며, 도쿄 납치사건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가슴이 벅차올라 글로 옮기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.



연출자 박태영 PD는 "삶이 곧 현대사였던 김 전 대통령 자서전 마지막 분장은 '나는 마지막까지 역사와 국민을 믿었다'이다. 당대의 평가에 급급하지 않았고 역사라는 큰 물줄기를 바라봤던 것이다. 서거 1주기를 맞아 이번 만남을 통해 현대사의 큰 발인 김 전 대통령을 회고하고 민주와 정의,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될 것"이라고 밝혔다.

/김철성기자 kps@kwangju.co.kr

송은이 MC 데뷔 Mnet '텐트 인 더 시티'

케이블 채널 엠넷은 개그우먼 송은이가 진행하는 토크쇼 '텐트 인 더 시티(Tent in the City)'를 오는 17일 밤 10시 첫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.

20대 탐구 토크쇼를 표방한 '텐트 인 더 시티'는 송은이와 함께 텔레토피 고은아, 정의철, 합합듀오 리쌍의 길이 공동 MC를 맡아 20대가 즐겨 찾는 장소에 텐트를 치고 장소에 어울리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.

제작자는 "송은이가 직접 기획안을 제출해 첫 녹화를 강행한 후 내부 시사를 거쳐 최종 편성 통보를 받았다"며 "진짜 20대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고정된 토크는 피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

/연합뉴스

Advertisement for '백 106' (White 106) featuring a Go board diagram and text about a Go match between Park Sang-ho and Baek Sang-ho.

Advertisement for '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' (Fortune-telling) for August 11th, listing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.

Large advertisement for 'We already passed over it' featuring Korean, Japanese, and Chinese text, including a Go board diagram and a photo of a man.